

[사전 토론문] 공공디지털영상아카이브 기능과 역할, 이슈에 대해

김종길 KBS 아카이브사업부장

1. 기능과 역할

○ 보존 중심의 기능

- 현재 방송사들의 현안 중 하나가 고화질 고품질의 4K, 8K 콘텐츠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투자가 요구되고 있음
-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난대비 DR개념으로 콘텐츠를 공급받는 보존이 중심이 되고 최소한의 공적서비스로 제한하여 방송사들이 서비스하는 부분과 마찰이 없다면 방송사들은 이해관계 측면에서 수용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임

○ 공적서비스

- 공적서비스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?
- 각 방송사나 미디어 업체에서 수행하는 부분과 충돌 해소 방안은?
- 공적서비스를 넘어 상업적 유료서비스로 확대 발전시킨다면 기존 방송사 등의 서비스를 커버할 것인가? 아니면 병행할 것인가?
- 유료서비스로 확대 시 수익분배, 효율 등 고려해야 요소가 많아짐

○ 공공디지털아카이브가 보존중심이 되든 공적서비스가 중심이 되든 각 방송사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역할을 대신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때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법 조항을 들어 강요나 강제는 반발만 불러올 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

2. 국가주도적 공공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시 이슈

○ 막대한 예산과 인력확보

- 보존중심이 되든 공적서비스가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 소요

○ 유연하고 신속한 신기술 개발 도입 및 적용

- 미디어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정부·기관이 민간기업처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?

3. 개인적 의견

○ 국가주도의 공공디지털아카이브는 보존기능이 중심이 되고 각 방송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존이 열악한 중소콘텐츠 업체에는 제작아카이브 기능을, 지상파방송사들에게는 DR이나 백업 기능을 지원

○ 공적서비스는 기존 방송사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공적기능, 명분을 살리는 절충안으로 킬러콘텐츠나 최신의 핫한 콘텐츠의 서비스는 각 방송사에 맡기고 일정기간이 지난 수요가 줄어든 콘텐츠를 공적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유료서비스에 의한 수익은 각사에 배당해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

또한 뉴스 등 공적성격이 강한 일부 영역에 한해 서비스를 우선하는 전략적 접근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음

○ 각 방송사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을 때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서로 윈윈(win-win)할 수 있다고 생각함